

‘서민의 발’ 광주 마을버스, 적자에 경영난 호소

코로나 이후 수익 30% 줄어
축소 운행에 일부 운행 중단
시, 위기 공감...상생방안 모색

광주 도심 구석구석을 누비며 ‘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 업체들이 가중된 적자에도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서민과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버스 특성상 정상 운행이 필수적이지만, 일부 마을버스노선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축소 운행되는 바람에 애꿎은 이용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마을버스 관리·감독 주체는 자치구”라며 거리두기에 나서는 한편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점에 맞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7일 광주시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업체와 면허대수는 석봉운수(700, 701번) 16대, 광산버스(720, 720-1번) 14대, 나라교통·나라운수(760, 763, 713, 714, 715, 715-1번) 35대, 광남운수(777번) 10대 등 5개 업체에서 11개 노선, 75대를 운행 중이다. 종사자는 123명이다. 이 중 20대 정도는 적자를 견디지 못해 운행을 중단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마을버스 적자액은 16억 4000만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수익은 30% 가까이 줄었다. 코로나 이전 60억원 가깝던 합계 수익은 4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마을버스의 연간 대당 지원금은 740만원에 불과하다. 정규 노선 시내버스(대당 6000만원)의 8분의 1 수준이다. 연간 전체 지원금을 모두 합해도 5억 7000만원이다. 이마저도 시내버스와 연동한 환승손실금과 구형 시설보조금 명목이

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도시철도 모두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지만, 마을버스는 자치구에서 관리·감독·지원을 하는 탓에 지원규모는 열악하다. 나머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광주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을버스 이용 승객수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적은 것도 아니다. 평일 승객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2만5000~3만명이 이용한다. 이는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50% 수준이다.

광주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적자액을 감당하기에도 벅잡다는 입장이다. 올해 광주시의 교통관련 적자보전 예산은 제2순환도로 290억원, 도시철도 1호선 626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1156억원 등 2072억원에 이른다.

도심 대중교통의 실패를 막고 있는 광주의 마을버스는 열악한 지원 때문에 운행규모도 초라하다. 수도권은 인구 1만명당 1.4대, 광주는

0.52대다.

광주마을버스운송조합측은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운영 적자 지원,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준공영제 또는 재정난도 지원 민영제 등을 건의했다. 또 시내버스 종점(회차지) 공동이용,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지원금 확대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 대전 등 일부 자치단체는 마을버스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민영제와 준공영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마을버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자치구와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특히 2024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대비한 대중교통 노선 개편 용역조사에 마을버스도 포함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촌교육농장 품질 인증 전남지역 농장 16곳 선정

전남도농업기술원은 7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에서 전남지역 농장 16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은 지난 2014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학교 교육의 높이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장주 역량,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등 5가지 품질요소를 평가해 우수한 농장을 선발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받는 제도이다.

농촌교육농장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업·농촌 자원을 소재로 한 학교 교육과 연계된 체험 행사를 운영하는 농장이다. 단순히 농촌체험을 넘어 학생들에게 농업 가치를 인식시키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농촌관광 및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매년 농장주들의 역량 강화 및 품질인증을 위한 교사양성 2개(기초·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응급처치 교육, 전문가 연계 현장 컨설팅과 품질인증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교육계 및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김보미 담당자는 “지속적인 농촌 교육농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 기준에 맞는 품격 높은 교육농장 육성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는 품질인증 농장 확대는 물론 치유농업과 연계한 전남형 농촌체험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예비-명품강소기업 광주시, 3곳 추가 지정 2년간 연구개발 등 지원

광주시는 “지역 산업과 경제를 견인할 ‘제5기 예비-명품강소기업’ 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9곳을 선정한 후 추가 지정한 기업은 ㈜뷰닉스, 선일텔레콤㈜, 리바랩 3곳으로, 제5기 예비-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한 곳은 총 12곳이 됐다.

예비-명품강소기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운영 중인 기업성장사다리 중 첫 단계로 명품강소기업보다 규모는 작으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2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성장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6개 업체가 신청해 서류심사와 발표 및 현장평가 후 최종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예비-명품강소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신성장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기업 성장목표와 성장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 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 광주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23개 기업지원 기관 등과 협업으로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해 행사를 마친 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김종섭 명예교수, 설동훈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올 공공비축미 12만3000t 매입 전국 최대

산물벼 11월, 포대벼 12월 말까지

전남도가 오는 12월말까지 2021년산 공공비축미 12만3152t을 매입한다. 지난해 12만1191t보다 1961t 증가한 규모다. 올해 전남 배정량은 전국 매입량 48만6000t의 25.3%의 비중이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11월 30일까지, 포대벼는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다.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미국종합처리장(RPC), 벼 건조·저장시설(DSC) 등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사들인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지난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총 9회 조사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벼 매입 직후 농가에 40kg 1포대 당 3만원의 중간장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을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벼 매입가격은 1등급 40kg 1포당 7만5140원이었다.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입 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 2개 이내로 지정한다.

약정되지 않은 품종으로 공공비축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 추출)하고, 매입 종료 이후 농식품부가 지정한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DNA 검사)을 한다.

올해 4000t을 매입하는 친환경 벼의 경우 철저

한 품질관리를 위해 출하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 출하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공공비축 미국 매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안전을 고려해 전량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작황을 고려, 향후 추가 매입물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 매입량 증가를 통한 쌀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수확기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미국수급안정대책에 시장격리계획을 포함하는 등 정부의 실효적 대책 마련을 지난 9월 말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마음 건강에 투자하세요” 화순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전남도는 7일 화순 하니옴문화스포츠센터에서 문금주 행정부지사, 구복규 도의회 부의장, 김종갑 화순부군수, 윤보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신건강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에서 정한 날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기념식은 ‘이제는 마음건강에 투자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22개 시군 관계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공모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곡성군, 화순군,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4개 기관과 유공자 2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수상했다. 또 정신건강 증진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로 곡성군, 나주시, 보성군보건소와 성산 정신요양원 고훈희 씨 등 8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문금주 전남부지사는 도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는 22개 시군 정신보건사업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철재시공모습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티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